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 (IV/完)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해방 이전과 이후 근현대건축과 작품활동(1950~1970)을 중심으로

김득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상담

건축사의 철학

일제시대에 태어나 16세의 나이로 전주공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한 이후 목공 및 목조주택 현장 실습을 통해 건축에 관심을 갖고 몰두한 흔적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음이 엿보인다. 김세환(1919~1979)은 식민지 기간에 교육을 받고 일본인 회사에서 건축수업을 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건축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은 1950년 예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해방 이후에 활동이 활발했던 건축사로 주요 작품시기는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이다.

공직에서 작품활동 중 건축사 김세환 씨는 1965년 1급건축사 면허 취득 후 예산에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를 1965년도 개설하여 충남건축사지부 창립멤버로 초대 감사¹⁾, 예산분소 초대분소장²⁾을 역임하면서 작품에 임했다.

건축작품에는 평촌초등학교(1952), 장복초등학교(1954), 구만초등학교(1956), 조림초등학교(1956), 동신초등학교(1957), 주교초등학교(1957), 예산중학교 본관·별관(1957), 예산교육청(1961), 예산제일감리교회(1962), 예산농업고등학교 본관(1963), 예산토지개발조합(1964), 예산문화원(1964), 예산중앙교회(1965), 충남보령복지법인 정심원 교육관(1967), 예산고등학교(1969), 농협협동조합(1970), 예산자유회관(반공회관 1970), 아산교육구청(1972), 예산중앙극장(1974), 향천사 극단전(1977) 등의 건축물들은 모던니즘

계열로 기술적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 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학교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공서, 사무실 등 설계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1965년대 근무한 박갑순(朴甲淳)³⁾, 1970년대 근무한 고흥주(高興柱)⁴⁾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할 직원들이 거의 없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속에 그 당시는 건축전공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문성보다는 건축전반을 알고 건축만능이 되어야 했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상은 건축의 모든 분야 즉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등을 마스터한 만능의 건축 기술자였다.

특히 박갑순 씨는 옛 일을 회고하면서 사업 실패 후 설계사무소 개설 때 아들(필자 김득수)이 이 집을 흥성 법원에서 낙찰 받아 찾아주었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했을거라며 나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게 아니라 가끔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고 전해 주었다.

방학 때마다 주로 설계에 참여 시간을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작품의 토론과 지도를 받았으며 모든 일을 손수하시는 생활에 필자도 배울 점이 많았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본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오구로 잉킹하는 방법, 두루마리 광감지를 도면에 맞추어 절단한 후 청사진 틀에 햇볕을 조절하여 암모니아 통에 현상하는 등 청사진에 풍기는 암모니아 냄새가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른 청사진을

1) 충남건축사지부 초대회장 및 임원 / 지부회장 양세환 1965~1971 / 총무이사 최용현 1965~1971 / 간사 조정환 1965~1971 / 간사 송장호 1965~1967 / 간사 배한국 1964~1969 / 간사 이원우 1969~1971 / 감사 김세환 1965~1967 / 감사 손돈영 1965~1967 / 대한건축사협회20년사 464p 광문정판사

2) 충남건축사지부 초대분소장 / 천안분소장 이문복 1965~1972 / 부여분소장 김윤환 1971~1978 / 예산분소장 김세환 1965~1972 / 보령분소장 신기현 1965~1975 / 논산분소장 김이동 1965~1976 / 대한건축사협회20년사 465p 광문정판사

3) 박갑순(朴甲淳, 1938년 4월 1일)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277 태생으로 부친(김세환)과는 외가당숙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충남대학교 건축공학학사(1956~1961)를 졸업하고 잠시 1965년 김세환 건축설계사무소 개업과 함께(1965~1966) 근무하면서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시작 대학 교수의 길로 들어선다. 대전공업전문학교(1966~1978) 학제 개편되면서 조교수, 부교수 동국대학교 건축공학석사(1978~1980) 학위를 받고 대전공업대학에서 대전산업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게 된다. 보직경력에는 학생과장 도서관장 등 역임하고 대한건축가협회 대전지회장(1992~1993) 대전광역시 건설심의의원 외 기관의 심의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연구업적은 철근콘크리트 보의 기둥 외부접합부의 내력과 인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 건축재료, 건축재료실험저서와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택 전화 042-524-3110, HP 011-436-7199)

4) 고흥주(高興柱, 1952년생) : 현 內浦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 예산 태생으로 미8군 설계실 근무(1970년),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1970~1973), 건축사보 대전건설공방단(1973~) 군복무 등 근무하였으며 제대후 잠시 건축가 김세환씨를 모신 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57-7 내포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로 작품활동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사무실 전화 041-632-0799, HP 010-2582-0798)

대하면서 잊고 산 지난 시간들... 직접 실행하여 완성함으로써 나 또한 학습과 할 수 있는 실기적인 작업과정이 가장 추억에 남는 학창시절이었다. 묘사력, 이해력이 도움되어 설계훈련을 받고 건축적인 기초를 닦게 된다.

1960년 대학 3학년 초 봄 방학기간 시골 예산에서 절친한 지인인 김동국⁵⁾(서라벌예대, 동양화), 정상원⁶⁾(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 김정자⁷⁾(수도사대 미술대학 서양화), 김득수(한양대 공과대학 건축과, 건축) 4인전 전시회를 갖는 등 활발한 작품세계에 몰두하게 된다. 그해 4·19혁명에 참여하고 5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에서 5·16 군사혁명을 맞았다. 6·25를 경험하고 1958년 대학을 입학한 학부시절에는 정치·경제·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난국의 연속이었다.

제대 후 복학하여 부친한테 사사받은 실력으로 졸업 작품은 특수학교설계로 설계(이해성 교수), 견적(홍봉희 교수), 의장·도화(박학재 교수) 등 학점이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때 기억으로 요즈음 모두 '홀더'를 쓰지만 당시에는 연필을 깎아 썼다. 하루는 어쩌다가 새연필을 깎아 쓰는데 "누가 신입사원이 새연필을 쓰라고 했어? 그건 선배를 주고 몽당연필을 버리지 말고 쓰란 말이야"고 호통을 받은 지난 시절, 몽당연필의 사용법은 사인펜 뒷 쫄무늬를 녹여 꽃아 쓰거나 트레싱 페이퍼를 말아서 쓰는 것이다. 2년 후에 100대 1이 넘는 경쟁자 속에 건축사(2-151·1-1400)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부친 김세환 씨는 예산읍 예산리 523-1 자택 마당에 손수 지은 사무실에서 작품에 몰두하다 과로로 고혈압에 쓰러져 당분간 요양 중 서울 사무실 직원을 파견하여 급한 일을 처리하고 필자도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였으며 책임감 때문에 다시 불편한 거동으로 작업에 임하였으나 병이 재발되어 결국 그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1979년 유명을 달리하였다.

건축사 김세환 씨는 그의 나이 60세 환갑을 못채우고 급환으로 후대를 위한 건축적 유언을 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셨다. 60세의 건축사로서는 이제사 진정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건축계를 이끌어 갈 시기였으나, 너무나도 아쉽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것이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에 유머와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식민지 시대에 청년으로서 겪는 여러가지 역경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호연지기를 가지셨었다고 주위 건축사들은 말하고 있다.

필자(김득수)는 2008년 4월 23일 오전 약속한 홍성내포건축사사무소를 찾았다.(1970년도 당시 근무했던) 반갑게 맞이하는 고흥주 씨의 말에 의하면 1973년 군에 입대전까지 건축사보로 현장을

답사하고 설계업무에 임했으며 그 당시 장항선, 천안을 제외하고 온양, 홍성, 광천, 서산, 당진 등 건축사사무실이 전무하여 지방현장에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예산리 마산골 출신 고흥주(내포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와 김세환건축사사무소 인연은 보건설, 신문사에 근무한 부친 고평우(高永祐) 씨, 국회의원 박병선(朴炳善) 씨와 세분이 돈독한 친구사이로 서울 미8군 소속 설계사무소 근무 중 시골 예산에 오게 되었고 했다. 낮에는 현장, 밤에 주로 건축설계를 하면서 밤 12시 전후 귀가가 보통이었다니 얼마나 열심이셨는지 알 수가 있다. 또한 지방현장에서 오삽으로 콘크리트 배합율과 시공과정을 배운 본인이 대전건설공병단 군복무 중 믹서기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처음 보았으며 건설자에게 대한 많은 자료와 경험을 얻었다고 하면서 김세환 씨의 건축철학은 사무실 청소를 잘해야 설계도 잘한다는 사명감, 주인의식을 갖도록 주시킴으로써 지나친 상업화로 가다보면 작품성이 없어진다고 강조하셨다 한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설계 검토 후 지적사항을 나열한 후 수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레싱 페이퍼(원도)를 찢어 버리고 다시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셨다니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치셨는지 잘 알 수 있다. 이것을 참고견디면서 배운 것이 훗날 건축을 이해하고 현장을 알게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작품은 주로 주택, 상가주택, 소규모 상가, 창고 등이 많았으며 특히 박선린(충남교통) 사장 주택 설계가 애착이 간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첫번째 혈압으로 쓰러진 후 불편한 몸으로 침을 흘리면서 전자 계산기가 없던 시절 슬라이드 계산기로 면적 계산, 재료 수량 산출 등 견적을 주로하셨고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불편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사무실과 집안 제거식 화장실을 콘크리트 정화조 시설로 개량하여 좌변기를 설치한 예산읍내 최초 수세식 화장실이 탄생하게 된다. 걷기가 불편하여 집에서 사무실, 화장실 등을 모시고 다녔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필자도 많은 정감을 갖게 되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제대 후 합동사무실 운영 당시 김현용⁸⁾(현 홍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1년 남짓 함께 있다가 홍성에 자리를 잡게 된다. 홍성에 자리를 잡은 후 김세환 건축사님이 부르면 혼자 사무실 잔무처리를 하시면서도 반가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셨다. 낮에는 홍성, 밤에는 예산을 오가면서 일을 도왔던 생각 등 김세환 소장님은 꼼꼼하고 청결하여 쓰러진 후에도 작품에 몰두하고 열정을 가진 분으로 충남건축사지부 회원은 물론 관계기관에 잘알려진 분이시더라고 말을 맺었다. 필자는 창작활동과 작품을 기대하면서 고흥주 씨의 앞날에 건투를 빈다.

5) 김동국(金東國, 1939년생) : 예산군 오가면 태생으로 서라벌 예술대 미술대를 졸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본부에 근무하였으며 경기건축사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정년퇴직하였다.(주택 전화 031-764-5930, HP 011-9750-5932)

6) 정상원(鄭相元, 1939년생)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태생으로 예산초등학교, 예산중학교, 예산농업고등학교,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였다.(주택 전화 041-338-2236, HP 011-448-2237)

7) 김정자(金正子, 1942년생)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태생으로 예산여고, 수도사대 미술대학을 졸업하였고, 중·고등 미술 교사를 하였다.(HP 018-263-9248)

8) 김현용(金顯用, 1947년생) : 현 홍성건축사사무소 대표, 1970년도 건축사보시절에 1년간 김세환 건축사사무소에 근무 하시면서 작품 및 현장 등 열심히 하신 분으로 1999년도 충남건축사회 18대 회장, 2003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분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4-12 홍성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사무실 전화 041-632-4120, HP 010-4451-9944)

고흥주 씨를 만난후 김현용 건축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점심 약속을 한터라 반가워하면서 1973년도 김세환 소장님의 얘기를 꺼냈다. 1년 남짓 근무하면서 소장님의 세심한 내용, 꼼꼼한 성격, 인허가 도면이 아니라 시공도면을 주문하셨던 분이라고 고흥주 씨가 말한 그대로 열심히 빠짐없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소장님의 설계검토는 선하나의 굵기 차이, 연필로 작도한 설계도면에 때가 묻지 않도록 깔끔한 설계를 원했던 것이다. 특히 시공할 수 있는 도면, 수량 산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수치, 거짓말 설계가 아니라 평면, 입면, 단면, 디테일이 일치하는 도면을 원했고 그렇지 못하면 수정하면 쓸 수 있는 트레싱페이퍼(원도)를 주저하지 않고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후 많은 작업을 거쳐 교회 교육관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회사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며 엄격한 교육 덕택으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홍성에서 현 홍성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한다. 김세환 건축사를 존경하는 김현용 건축사님의 열정과 작품활동에 건투를 빌면서 필자는 예산 버스 편에 올랐다.

황규신⁹⁾(黃圭信, 1956년생, 현 건축사사무소 진화건축 대표건축사) 김세환 건축사사무소(1974~1975) 건축사보로 2년간 근무하면서 그당시 군 당국시책으로 예산읍 무허가 건축물 350여건을 현장 조사와 실측을 반복하면서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예산중학교 뒤 두견 양주공장 설계와 여러 작품에 활동한 후 건축사 면허취득, 대전에서 작품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다.

김홍택¹⁰⁾(1951년생, 현 김홍택건축사사무소 대표)은 1974년도부터 1979년까지 6여년간 김세환의 건축과 동반한 분신과 같은 분이다. 본론을 집필한 자료를 몸소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 그에게 의뢰한 자료는 대부분 대화로 나누었고 이를 일부 반영한 내용은 설계 과정에 있었던 일, 현장 체험 내용, 김세환 씨의 철학 등 그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더니즘과 같이 일제시대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광복 후에 건축적 실천을 도모하면서 한국적 모더니즘을 실천한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작품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게되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살아생전 지내온 언행과 발자취는 한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좌담회

필자 김득수 : 오랜만에 회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본협회에서 자주 뵈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늦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저의 부친이신 김세환 건축사의 형제분 발자취를 자료로 남기는데 여러분의 고언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논문 「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충남에

산지방의 근대적 도시 변화」 1차 논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연세대 이경희 교수, 김성우 교수와 목원대학 건축과 김정동 교수의 조언으로 개항이후 서구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건축사의 건축계 활동, 해방이후 건축사제도 시행 전후 배경을 추가자료를 찾아 정리하는게 어떤가 하는 김정동 교수의 의견에 의해 -김세환과 그 시대 작품활동- 자료를 추가하여 2차 심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찾았다 하였으나 조사과정이 짧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협회 건축사지에 투고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후배건축사들이 선배건축사들의 건축활동은 물론 작품을 정리하고 잊혀져가는 건축사의 출현과 배경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건축사들의 작품 성향과 빛을 보지 못하는 자료를 발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초창기 협회 발족과 함께 창설한 그 시대의 건축 상황과 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우 전회장 :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김득수 건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건축역사의 초창기에 활약한 건축사의 자제분이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더군다나 선배건축사이자 선친이신 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 남기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건축대서사소 시절 구협충남지부장은 배한구 씨가 맡아 활동했으며, 당시에는 건축사시험에 대학졸업자에게는 건축사자격증을 그냥 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배한구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은 협회 창립을 위해 서울, 대전을 오가면서 건축사법에 의거 창립회원 22명으로 충남건축사지부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초대지부장은 양세환 건축사가 맡았고, 간사 3명,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지역건축 발전과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양세환 회장님에 이어 제가 2번째(4, 5대) 지부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관을 건립, 준공식을 가진 회장으로서 감회가 크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우 전회장 : 그 당시 내세워 자랑할 만한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들이 혼재되어 있던 때였고, 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며 목조와 블럭조로 도시나 농촌의 경관을 결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양세환 초대회장 당시 초대 감사를 김세환 씨가 맡아 대선배인 두분이 콤포비를 이루어 충남지부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두분이 어울리면 집에도 못가실 정도였고 저도 두 선배님을 모시고 끝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 황규신(黃圭信, 1956년생) 예산군 응봉면 임침리 태생으로 현 건축사사무소 진화건축 대표건축사로 나의 건축 반세기 2009년 초판 발행한 후에 김세환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을 알게되어 재판발행에 그의 행적을 삽입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131-2 월드빌딩 6층(사무실 042-527-5102 HP. 010-5426-54752)

10) 김홍택(金洪澤, 1951년생) : 현 김홍택건축사사무소 대표. 예산 태생으로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1974~1979) 근무, 건축사면허 취득 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26-3 국민은행 2층 김홍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작품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다.(사무실 전화 041-334-3456, HP 011-422-7013)

박홍우 전회장 : 약주를 드셔도 김세환 씨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양세환 전회장은 술을 드시면 (주사가 있어) 끝까지 후배들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유근열 전회장 : 총회나 간사회의가 있을 때마다 집에 못가도록 감사님을 붙잡은 예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식 전회장 : 양세환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민 회장님도 약주를 꽤 좋아하셨죠. 요즘처럼 자료보관이 잘 된 때도 아니어서 자료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필자 김득수 : 연세대 건축과 석사논문 - 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심사위원으로 이경희, 김성우, 김정동 세분 교수님이 심사 때 목원대학 김정동 교수와 인연이 맺혔지요 -예산지방근대적 도시변화-에 이어 해방 이후 건축 과정에 대한 자료 조사로 예산지방 건축계 활동을 많이 하신 선친 위주로 쓰게 됐습니다. 아마 충남지방 각 시군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우식 현 충남회장 : 김득수 서울부회장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박천수 시장 시절 아산시가 발주한 시민체육관을 설계하셨을 때 제가 감독관으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필자 김득수 : 그렇습니다. 박천수 아산시장은 예산중, 예산농고 2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회장이 편안하게 감독해 주셔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다는 인사가 늦었습니다.

신우식 현 충남회장 : 저도 충북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은 제가 몇기 앞서 한 것 같습니다. 김득수 건축사님 석사논문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도 하기 힘든 작업일텐데 연로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박홍우 전회장 : 김득수 건축사님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김운환 씨는 형님 김세환 감사님을 말없이 끝까지 따라다녀셨던 기억이 납니다. 충남대 영선과에 근무하셨죠. 김운환씨 큰 자제분 결혼 주례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유근열 전회장 : 김운환 선배님은 통 말씨가 적은(편이면서 좀 짜다고 할까 동료들에게 약간은 인색한) 편이었던 같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선친되시는 김세환 씨는 전에 총회 때 대전에 오시면 회의 끝난 후 몇차례 약주를 하시고 술값을 지불하고 예산가는 차비를 빌린 뒤 몇해 후에 회의때 와서 그때 빌린 돈을 잊지 않고 갚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사 정확하고 꼼꼼한 분이셨죠.

유근열 전회장 :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산 사무실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빌 때마다 아들(필자 김득수) 자랑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택마당에 지은 3층 건물 사무실도 아들이 자재를 보내주어 지었다며 설계에 필요한 트레이싱지, 청사진 감광지, 연필 등도 보내준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 퇴임 후에 잘나가던 건설업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홍성 법원에 공매처분 때도 큰 아들(필자 김득수)이 알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여 입찰 후 모친 앞으로 이전하였을 때 고맙다는 말 이외에 할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부친께서는 속 있는 말까지 나에게 얘기하여 주어 김건축사의 속깊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자 김득수 :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양세환 회장님, 박홍우 회장님, 김종민 회장님, 유근열 회장님 등 여러분이 많이 애쓰셨는데 인사를 자주 못해 죄송합니다.

강우식 전회장 : 선친께서 가끔 술을 드시고 “나는 한 살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야”라고 농담을 하신 생각이 납니다.

필자 김득수 : 선친께서 1919년 3월 1일 태어나셔서 그러셨나 봅니다.

강우식 전회장 : 농촌 출신의 건축사이신 선친에 대한 자료를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를 이어 건축에 종사하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 모으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원대 김정동 교수에게 그 동안 모은 자료와 협회 관련 책을 기증했습니다. 김건축사님 자제분도 같은 전공을 하였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필자 김득수 : 예, 한양대를 나오고 지금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역대회장

- 양세환(梁世煥, 1920년 9월 16일생) : 1, 2, 3대 회장. 충남출신으로 대전공업학교 졸업(1940년), 건설회사 자영(1945~1947), 충남도청기원(1948~1951) 등 건축설계 영선업무를 담당했다. 1959년 건설기술자(건축1급 160호), 1965년도 건설부시행건축사(1-262)를 취득하고 1951년 건축대서사무소를 거쳐 1980~2000까지 정원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지부 창립회원 ※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 김종민(金鍾敏, 1934년 8월 3일생) : 4, 5대 회장(1971. 4~1975. 3). 대전 출신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졸업(1954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3년 수료(1956년), 대전제신청 회계과(1958~1967)에서 건축설계 영선업무를 담당했다. 1965년도 건설부 시행건축사(1-260)를 취득하고 1970~2005년까지 건축사사무소 새건축을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1967년도 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 대한건축사협회 8, 9대 감사(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 박홍우(朴弘雨, 1935년 12월 15일생) : 6, 7, 8대 회장(1975. 4~1979. 3).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졸업(1954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58년), 해동기업주식회사(1961~1963), 대전시교육청(1963~1964)에서 건축설계 영선 업무를 담당했다. 1958년 건축사공기사 2급(2329호), 1967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905)를 취득하고 1983~2005까지 협창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1965년도 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지부 창립 회원, 대한건축사협회 14대 감사, 충청남도 지부 4, 5대 총무이사(1971. 11~1975. 12)(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김종민 전회장 : 선친께서 마음 곱게 늙으시면서 아들 사랑을 많이 하셨는데, 부친이 살아온 과정을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협회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필자 김득수 :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 늦게 모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배 회장님들도 시간 나시는 대로 그동안 겪어온 건축 인생과 협회 활동, 작품 등을 정리하시어 후배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 일시 : 2008년 5월 28일(수)

▷ 장소 : 대전

▷ 참석 : 김종민, 박홍우, 유근열, 강우식 전임회장, 현 정중태 대전회장
현 신우식 충남회장, 대전 이을구, 충남 이종국 사무국장
(양세환 초대회장은 몸이 불편하시어 불참, 직함은 당시 기준)

마치는 글

지금껏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앞으로 몇십년 후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후손에 물려줄 우리의 고귀한 건축 문화 유산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참모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자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가깝게 모시고 생활해 온 한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갑순 한밭대학 건축과 교수의 아낌없는 증언과 고흥주 건축이사, 김현용 건축사, 황규신 건축사, 김홍택 건축사의 사실과 같은 진솔한 대화에 감명을 받아 깊이 새기고 필자는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충남건축사 지부 김종민, 박홍우, 유근열, 강우식 역대회장을 비롯하여 현 신우식 충남건축사회 회장, 정중태 대전건축사회 회장님과 이을구, 이종국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들려주신 좋은 말씀과 고견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그의 발자취의 남아있는 부분들을 정리함으로써 본 집필을 마친다.

도시 건축물 보전방향

건축문화 유산은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만 5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무분별하게 철거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등록제도가 2001년 7월에 개정되면서 법률적 보호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률이 발효되면서조차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국도극장이 하룻밤 사이에 철거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법과 원칙아래 보전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은 여러 시대에 걸쳐 변화해 온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로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줄필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하는 이유는 건축 근대사 발전 속에 일제강점기시대 근대교육을 받은 잊혀져 가는 건축사들의 출현과 그 배경을 정리함으로써 지역 건축계의 현황과 위상을 정립하고 근대건축의 형성과 현대건축으로 이어지는 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6·25전란과 영세한 기반에서도 건축사의 활동은 1970년대까지 열심히 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필자의 이러한 수고가 한국의 현 근대 건축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뿐더러 지역의 건축사들의 작품조사와 빛을 보지 못하는 자료를 발굴, 연구의 필요성에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건축사들이 완성해 놓은 작품은 그 시대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듯이 50여년의 세월 속에 혹은 철거되었으나 2층도 짓기 어려운 시기에 구하기 힘든 건축자재, 장비 등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기능공의 부족, 공기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건축물들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정성을 들인 건축사의 사명감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50여년 건축계에 종사하면서 필자의 작품은 물론 부친이신 김세환 씨의 작품세계를 기록보존하고자 10여 년에 걸쳐 조사는 물론 그 시기에 함께 종사한 분들의 이야기 등을 참고하였다.

세월이 지난 지금 부족하고 졸속한 내용을 기록보존 차원과 건축사의 집안으로서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 특히 선친의 건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글을 정리하였다. ▮

•유근열(柳根悅, 1936년 8월 8일생) : 8, 9대 회장(1979. 4~1983. 4),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졸업(1957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2년), 대전시청(1962~1972)에서 건축설계영선,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1970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1143)를 취득하고 192~2005까지 중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대한건축사협회 15대 감사, 충청남도 지부 6, 7대 감사(1975. 12~1980. 12)(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민영기(閔榮基, 1937년 8월 19일생) : 10대 회장(1983. 4~1985. 3),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고등학교졸업(1956),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1), 1967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925)를 취득하고 1965~1995까지 민영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1995년도 작고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충청남도지부 4, 5, 21대(1971. 11~1975. 12), 6, 7대 총무이사(1975. 12~1982. 12), 대한건축사협회 13대 이사(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강우식(康佑植, 1935년 2월 20일생) : 11, 12대 회장(1985. 4~1989. 3),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졸업(1955),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0년), 1966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811)를 취득하고 1980년부터 현재까지 (주)조형그룹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계시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충청남도지부 8, 9대 간사(1980. 11~1984. 12)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참고문헌 / 강경중앙초등학교 100주년 년사(2005. 4. 3 발행), 전주공업학교, 80년사(1994. 5. 1 발행)전주공업학교 학력증명, 졸업증명, 일본간조(間組하자마구미), 한국근대건축개론 건축운동연구회 1992